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5.26.(월)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766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동행’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주최,

민주당-소상공인 10개 단체, 정책 한뜻·협약 9건·전달 1건 체결

- 뷰티 · 예술 · 제과 · 조리 · 제조 · 유통업 등 10개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참여
- 오세희 위원장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과의 정책 협약과 전달받은 정책 제안 모두 민생 논의의 중심에 들 것 ”

2025년 5월 26일 (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산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5월 26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06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은경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김성환 정책본부장, △권철승 먹사니즘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식은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과제를 공식 협약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책 협약은 총 9개 소상공인 단체와 체결됐다. 참여 단체는 대한제과협회(마옥천 회장), 한국조리기능장협회(김태순 이사), 한국베어링산업협회(김종구 명예회장),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황종열 총재), 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김서진 회장), 대한뷰티산업진흥연합회(박희철 회장),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박미애 이사장), 케이아트메이크업협회(유제윤 부회장),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박평일 회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중학 이사)는 정책 제안을 통해 가맹점주의 요구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정은경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숫자를 넘어서 자영업자들의 무너진 삶의 이야기”라며 “오늘 정책협약이 단순한 서명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연대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몸소 느끼셨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지역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각 단체가 제시한 현장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위원장은 “늘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그 현장의 땀과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정책 제안을 민생 논의의 중심에 두고 정치권이 끝까지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식은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람을 직접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민생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체별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정책 이행 점검을 통해 제안된 과제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끝/.

붙임1. 정책협약식 사진

